

■ 주요 뉴스: 미국 9월 고용지표 반등, 코로나 극복 및 경기 회복 기대감 반영

- 영란은행 베일리 총재, 금리 인상 필요시 주저하지 않을 것
- 연준 파월·브레이너드, 지난 11/4일 바이든과 회동
- 아마존, 인터넷 서비스 위해 4,500대 인공위성 추가 발사 계획

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 고용지표 호조와 코로나 회복 기대감 반영

주가 상승[+0.4%], 달러화 약보합[-0.1%], 금리 하락[-8bp]

- 주가: 미국 S&P 500 지수는 미국 실업률 하락으로 강세
유로 Stoxx 600 지수는 유로존 경기둔화 우려 등을 반영해 보합
- 환율: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,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혼조세
유로화 가치는 강보합, 엔화는 0.3% 상승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테이퍼링 지속 전망과 영국 금리 동결 등이 배경
독일도 유로존 소매판매 부진 등으로 6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92.7원, -3.7원) 0.3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11/5일	11/4일	전일대비			11/5일	11/4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697.5	4,680.1	0.37%	국채 금리 10y	미국	1.45%	1.53%	-8bp
	유럽	483.44	483.21	0.05%		독일	-0.28%	-0.22%	-6bp
	중국	3,491.6	3,526.9	-1.00%		한국	18bp	18bp	0bp
	일본	29,612	29,794	-0.61%	CDS 5y	중국	35bp	34bp	1bp
	한국	2,969.3	2,983.2	-0.47%		EMBI+	380	381	-1bp
	달러지수	94.22	94.35	-0.13%	위험 지표	VIX	16.48	15.44	6.74%
환율	유로화	1.1567	1.1554	0.11%		WTI유	81.27	78.81	3.12%
	엔화	113.41	113.76	0.31%	원자재	구리	434.3	432.1	0.52%
	위안화	6.3988	6.3972	-0.03%		금	1,818.4	1,792.0	1.47%
	원화	1,185.2	1,182.6	-0.22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500, 유럽 Stoxx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9월 고용지표 반등, 코로나 극복 및 경기회복 기대감 반영

- 미국 노동부는 10월 비농업 일자리가 53.1만개 증가했다고 발표. 이는 예상치(45만개)를 상회한 것으로, 공공부문 일자리가 7.3만개 감소했으나 민간 일자리는 60.4만개 증가. 10월 실업률도 4.6%로 예상치(4.7%) 하회
- Bloomberg 등은 기업의 임금 인상 등 인센티브가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. 10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비 0.4% 상승
- Goldman Sachs는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코로나 극복과 경기회복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향후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분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영란은행 베일리 총재, 금리 인상 필요시 주저하지 않을 것

- 지난 4일(현지시각) 기준금리를 0.1%로 동결한 뒤 시장의 우려가 제기되자 베일리 총재는 5일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
- Huw Pill 영란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인플레이션이 거의 5%를 향해 치솟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일부 필요하다고 언급

■ 연준 파월·브레이너드, 지난 11/4일 바이든과 회동

- 연준 파월 의장과 함께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가 4일(현지시각)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회동을 가진 것으로 5일 보도
- 내년 2월 파월 의장의 연임 의견이 우세하나 민주당 진보 인사들은 브레이너드로의 교체를 추진하는 상황에서, 파월이 연임할 경우 브레이너드가 부의장을 맡게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

■ 아마존, 인터넷 서비스 위해 4,500대 인공위성 추가 발사 계획

- 아마존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전세계 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성 4,538대 추가 발사 계획을 제출. 기존 계획안까지 포함하면 아마존의 인터넷용

■ 바이든, 화이자 코로나19 치료제 수백만회분 확보

- 바이든 대통령은 화이자가 개발한 알약 치료제는 코로나 감염에 따른 사망을 극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언급

■ 前 미국 식품의약국 국장, 내년 1월까지 미국서 팬데믹 종료 가능성

- 스콧 코틀리브 전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까지 백신접종을 의무화한 조치로 인해 팬데믹이 종료되고 풍토병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

■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(AIIB), 내년에도 개도국 백신 자금 지원

- 중국이 주도하는 AIIB의 Alexander 부사장은 글래스고 유엔기후협약에 참석해 회원국의 경제·보건적 충격 대응을 위해 130억 달러의 기금을 설치했다고 언급

■ 유럽 보험연금감독청(EIOPA), 빠르면 '23년 보험사에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

- EIOPA 회장, 보험사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화석연료 인수 등이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. 또한 내년 연기금의 스트레스테스트도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

■ 미국 상원, 빅테크 인수합병 규제 법안 도입 신청

- 민주당 Amy Klobuchar 상원의원은 공화당 Tom Cotton 의원과 함께 독점금지 강화를 위해 알파벳, 구글,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의 거대 IT기업 인수를 어렵게 하는 초당적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힘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1/5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0월 실업률: 4.6%, 전월(4.8%), 예상치(4.7%)
- 유로존 9월 소매매출(전월비): -0.3%, 전월(+1.0%), 예상치(+0.3%)
- 독일 9월 산업생산(전월비): -1.1%, 전월(-3.5%), 예상치(+1.0%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41, E-mail jgbaek@kcif.or.kr